

사회



“설 선물 과대포장 안됩니다” 고 있다.

11일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점검반원들이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대형마트를 찾아 설 명절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 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황주홍 자서전 진실공방

황 전군수 “총무과장이 오후 2시쯤 퇴근 권유”

당시 총무과장 “퇴근시간 애기한적 없다” 반박

총선출마를 위해 최근 사퇴한 황주홍 전 군수가 펴낸 책에서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를 지적하는 내용을 놓고 반박이 오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한 황 전 군수는 재직기간 중 특임이 쓴 ‘근정일기’를 모아 책으로 펴냈다.

문제는 이 책의 48쪽에 실린 내용의 진위 여부. 황 전 군수는 책에서 당시(2004년 11월) 총무과장에게서 내 사무실에 들어왔다. 오후 2, 3시쯤이었다. “군수님 이 시간쯤에 퇴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쯤 퇴근해 주셔야 좀 뒤에 저희 간부들도 마무리해 놓고 퇴근하고 그리고 나와 일반 직원들도 뒤따라 퇴근하게 됩니다. 역대 군수도 다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 전의 군정 모습이 어땠는지 어렵잖게 짐작되었다. (중략) 이에 대해 발언자로 지목된 당시 총무과장 박모 씨는 지난 10일

강진군청과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사람의 벼슬욕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거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황 전 군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아무리 한가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도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당장 문책(징계) 받을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황 전 군수 역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저는 이 얘기를 이번 제 책에서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강진 군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얘기했다”며 진실임을 강조했다. 또 황 전 군수는 “무엇을 목표하고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러시는 줄 짐작은 가지만,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맞서 진실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특별한 것 없는 광주 ‘특화거리’

북구 공구거리·남구 맛의거리 등 수억원씩 들여 조성

손님마저 끊겨 ‘쇠퇴’...통합적인 마케팅전략 마련해야

광주 각 자치구들이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수억원씩 들여 조성한 특화·전문 거리 상당수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 거리 가운데 일부는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끊겨 쇠락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와 상인의 불협화음으로 사업 취지가 퇴색되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 구도심을 중심으로 7개의 전문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동구 나무전 거리(계림동)·전자의거리(금남로 5가)·상점가(충장로), 북구 공구거리(운암동)·건축자재의거리(중흥동)·자동차의거리(신안동~임동)·패션의거리(용봉동) 등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전문 상점가로 정식 등록되는 않았지만 동구 인체의거리·예술의거리·음식의거리, 북구 오리요리의거리·향토문화의거리, 광산구 딱갈비의거리, 남구 맛의거리 등도 전문거리 또는 특화거리로 불리고 있다.

이 중 전문성을 부각시켜 활성화된 곳은 극소수며, 대부분이 동일 업종을 한 곳에 모아 지원하는 천편일률적인 지원으로 거리 특성이 사라졌다.

광주시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87년에 조성한 ‘예술의거리’는 지난해 가톨릭센터~중앙초등학교 후문 구간을 확대, 활로를 모색했으나 뚜렷한 효과가 없는 상태다. 오히려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공연장, 화랑·필방들이 접경체로 문을 닫고 있다. 북구 공구거리의 거리 역시 2010년 11

억9000여만원을 들여 200여개 상점의 간판을 LED로 교체했지만, 일부 부품의 높은 하자비율로 상인들의 불평을 샀다. 1998년 윤락가를 없애 조성 초기 호평을 받았던 향토 문화의거리(구 삼일로)는 공영주차장까지 마련됐지만 화랑이나 서점 대신 점집·식당·자동차 정비업소만이 들쭉 들쭉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특화 거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달리 상가 활성화보다는 환경개선이거나 주차장을 비롯한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현대화에만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화거리별로 통합적인 마케팅전략을 마련, 균일하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올 등록금 5% 인하

조선이공대는 4.1% 내려

전남대학교는 올 등록금을 전년 대비 평균 5% 내린다.

전남대는 11일 교수·학생·기성회 등 대학구성원 대표와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한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열별 인하율은 차등 적용, 최고 6%에서 최저 3.4% 수준까지 내린다.

학생당 등록금은 전년 대비 연간 22만원 가량 준다.

계열별로 재학생 기준(학기당) 인문사회계열 174만6000원, 자연계열 207만7000원, 공학계열 224만7000원, 예능계열 231만3000원이다.

전남대 관계자는 “학부모 부담 경감과 물가상승 억제 부응,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내리기로 했다”며 “이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동결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조선이공대학은 평균 4.1%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40분, 달돋이 20시 56분, 달질 09시 14분. 대체로 맑음. 대체로 맑으나 서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광주: 구름조금 -5/3°C, 목포: 구름많음 -4/3°C, 여수: 맑음 -4/5°C, 나주: 구름조금 -8/4°C, 완도: 구름조금 -3/4°C, 구례: 맑음 -7/3°C, 강진: 구름조금 -4/4°C, 해남: 구름조금 -5/4°C, 장흥: 구름조금 -5/4°C, 순천: 맑음 -4/4°C, 영광: 구름많음 -8/3°C, 진도: 구름조금 -3/4°C, 진주: 맑음 -8/2°C, 군산: 구름많음 -8/2°C, 남원: 맑음 -11/-2°C, 흑산도: 구름조금 -1/3°C.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신입생 10명도 안돼”

전남 학생없는 고교 속출...20곳 지원을 50% 밀들어

급격한 학생수 감소로 전남지역에서 신입생 10명도 채우지 못한 고등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후기 고교 원서 마감결과 전체 지원자가 10명이 안 된 곳은 공산고(4명), 여남고(5명), 소안고(6명), 조성고와 북평상고(7명), 하의고(8명), 조도고(8명), 약산고(9명) 등이다.

일반계와 전문계를 함께 운영하는 중앙중고는 각 8명과 6명으로 모두

10명을 채우지 못했다. 별교제이고 보통과는 정원 32명에 단 1명의 지원자도 받지 못했다. 석교고(보통과)는 단 1명 지원했다. 전후기 모두 합해 학생 지원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학교도 일반계 13곳, 특성화고 7곳 등 20곳에 달했다. 일반계고 지원율은 95.9%로 정원(1만8772명)보다 767명이 부족했다. 특성화고는 103.1%로 정원(7622명)을 겨우 넘겼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Korea J-Korea Home Repair)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Text: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Includes phone numbers for Seoul, Busan, and Gwangju branches.

Advertisement for Chilman (칠만표 방수제) waterproofing products. Text: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가자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Includes contact info for Gwangju and Jeonnam branches.

Advertisement for OKNWOOD (오큰우드) interior products. Text: "www.oknwood.com", "2012년 신제품 특허제품". Lists products like KCC ceiling board and various interior finishes. Includes contact info for Gwangju branch.